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닭 기르기 100문 100답

## Ⅱ. 사양관리편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양계현장에서 농가가 필요로 하는 기술 분야의 질의사항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가 답변한 '축산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닭 기르기 100문 100답집'을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육종, 번식, 종자보존과 관리, 사양관리, 항생제 대체제 이용, 계사시설과 환경관리, 품질관리, 위생과 질병, 경영관리 등 양계의 다양한 분야에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 본고는 이 책자 내용 중 육계분야에 대한 내용을 발췌하여 게재한 것이다.

Q1

**병아리 입추 초기 소낭을 이용한 사료섭취 확인요령은?**

소낭은 목 앞부분에 위치한 근육으로 된 주머니로써, 만약 어린병아리들이 적당하게 사료와 물을 섭취했다면 소낭은 사료와 물의 혼합물로 채워지게 된다. 소낭은 가득 차서 둥그런 형태가 되어야 하며, 내용물은 부드럽고 죽같은 농도여야 하는데, 만약 소낭의 내용물이 딱딱하거나 소낭의 벽을 통해 사료의 본래 질

감이 느껴진다면 그 병아리들은 물을 적게 마셨거나 마시지 못한 것이다.

입추 8시간 이후에는 병아리의 80%가 소낭이 차야 하며, 24시간 이후에는 병아리의 95%가 소낭이 차야 한다. 만약 소낭 채우기가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어린병아리를 위하여 종이 위에 사료를 충분히 뿌려주어야 하며(35g/수당), 병아리가 스스로 찾아서 섭취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사료가 뿌려진 종이 위에 어린병아리를 올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사료의 크기가 적당하게 분쇄되어진 크럼블인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24시간 이후에 어느 병아리라도 물의 섭취가 부족해 보이면 물의 섭취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 넙플에 물방울이 있도록 수압을 조정해야 하며, 처음 24시간 동안은 급수기를 추가해야 한다.

(가금과 나재천)



## 물의 중요성과 고온기 급수관리 요령에 대해 알려주세요.

물은 체조직의 60~70%를 차지하며, 특히 병아리의 경우 몸의 약 8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중 20% 이상 손실했을 경우 폐사할 수 있다.


육성중인 육계의 체중 1kg 증체에는 약 4ℓ의 물이 소요된다. 그 중 약 75%는 직접 음수로부터 얻고 나머지는 사료로부터 얻으며, 일반적으로 사료섭취량의 약 2배에 달하는 물을 마시나 온도 변화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따라서 물은 24시간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물의 양이 적거나 급수기의 수가 적어서 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의 역할은 ① 먹은 사료를 체내 소화기관에 운반하고, ② 혈액의 중요한 구성성분으로써 영양분을 각 기관에 운반하며, ③ 섭취한

사료의 영양분 흡수를 돕는다. ④ 고기나 계란을 생산하는 생화학적 반응에 관여하고, ⑤ 체내에서 생성되는 노폐물이나 독성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며, ⑥ 관절부를 윤활하게 해주는데 관여하고, ⑦ 체온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하다.

닭 1,000마리를 기준으로 사육 적온인 21.1℃일 때 1주령에는 30.4ℓ의 물을 마신다. 그러나 6주가 되면 174.8ℓ를 마시며 주령이 경과되면서 음수량은 크게 증가한다. 특히 더위에 약한 닭은 사육온도가 올라갈수록 음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며, 6주령 4.4℃일 때에는 125.4ℓ를 섭취하는데 비하여 37.8℃로 온도가 올라갈 경우 573.8ℓ로 4~5배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고온기에 음수량이 증가하면 닭은 연변을 싸게 되고 이로 인해 계분처리가 더욱 어려워지며 수분조절제 투입량도 증가하게 된다.

여름철 고온기에는 닭에게 급여하는 물의 이상적인 수온은 10~20℃로써 감압탱크와 파이프에 단열처리를 하고 감압탱크에 얼음을 투여하도록 한다. 또한 물 1ℓ당 비타민 C 0.1g과 사리칠산(아스피린) 0.3g을 첨가한다. 유해세균 및 곰팡이의 억제제를 위한 음수소독으로 물로 인한 소화기 계통의 질병을 예방한다. 

(가금과 황보 중)